창성고에 펼쳐진 전변의 새 모습

평안북도 창성군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어디서나 보이는건 산뿐이다. 지난날 가난과 설음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그 산들이 오늘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되였다. 얼마전 우리는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아래 살기 좋은 고장으로 천지개벽을 이룩한 창성땅의 새 모습을 전하기 위해 취재길에 올랐다.

글: 본사기자 박철남
사진: 〃 김남철

창성하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것이 산이 많은 고장이라는것이다. 실지 평안북도 북부에 있는 창성군은 산지가 군면적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산이 많은 군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창성의 력사는 오래다. 창성이란 지명유래가 성을 쌓으면서 번창해졌다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한다. 고려시기에는 장정현, 창주로 불리우다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 정식 창성으로 불리워지게 된 창성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 산간벽지의 대명사로, 못 먹고 못 입고 못사는 고장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여왔다.

오죽했으면 온 집안이 집밖을 나설 때면 아버지의 홑적삼을 돌려가며 입어야 했고 살길을 찾아 이곳에 왔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하였겠는가.

그랬던 창성의 산들을 인민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안겨주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되게 해주시고 창성땅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켜주신분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이시다.

어제날의 궁벽했던 산골군이…

돌이켜보면 창성사람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걸고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창성군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일수가 398일에 걸으신 현지지도로정만도 5만 5 000여리,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일수 274일에 현지지도로정이 4만 5 000여리에 달한다고 하니 정녕 창성군의 오늘같은 전변은 절세위인들의 애국헌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 길에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깃들어있는가.

언제인가는 자신께서 돌발길을 많이 걸어야 창성사람들의 생활이 펴인다고, 그런데 구두를 신고 돌발길을 걷자니 발이 부르튼다고 하시며 어버이수령님 밤새 초신을 삼으신 못 잊을 이야기도 있고 창성사람들이 자기 고장의 원료로 만들어낸 종이를 거듭 만져보고 쓸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손수 펜을 드시고 《내 나라》라고 세번이나 글을 써보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참으로 창성땅 곳곳에 깃들어있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인민을 위해 험한 길을 걷고걸으시며 만복의 터전을 닦아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헌신의 한평생을 그대로 전하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지난해 6월 창성땅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창성같은 군은 없다고, 대원수님들의 령도사적이 많이 깃든 곳이기때문에 오늘도 창성군은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그 사랑, 그 믿음에 떠받들려 창성이 자기의 면모를 또 한번 바꾸어가고있다.

어제는 꼴바싸와 같은 여러가지 고기가공품들과 두부, 에스키모, 콩나물, 감자튀기, 떡류, 맥주를 비롯한 각종 식료가공품들을 생산하는 창성식료가공공장에 이어 전자열람실과 원격강의실, 다매체열람실 등을 갖춘 창성군미래원이 번뜻하게 일떠서더니 오늘은 또 은덕원 개건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 이제 또 련이어 첨단의료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춘 현대적인 군병원이 일떠서게 된다니 오늘도 좋지만 보다 더 좋아지게 될 창성땅의 래일이 금시 보이는것만 같다.

하기에 창성사람들 누구나가 한결같이 말하는것이 있다.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이 있어 오늘의 창성이 있고 더 좋은 락원으로 변모될 래일의 창성이 있다고.

황금산, 보물산에서 만복의 열매 따들인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풍년이 들었다.

울창한 수림에는 진한 향기를 풍기는 머루며 다래, 찔광이, 돌배 등이 가지가 휘여지게 달리고 키높이 자란 잣나무들에는 애기머리통만 한 잣송이들이 어서 오라 사람들을 부르고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일손도 바빠졌다.

례년에 없이 많이 달린 산과일들을 따들이느라 남녀로소모두가 떨쳐나섰다. 여기저기서 산과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흥겨운 노래소리, 서로 찾고 부르는 소리가 산골짜기마다에 울려퍼지는데 방금 따들인 도토리며 머루, 다래, 찔광이들을 가득 실은 자동차, 뜨락또르들이 연방 꼬리를 물고 식료공장에 들이닥친다. 따들인 산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군안의 여기저기서 도토리, 잣들을 쭉 펴놓고 말리우는 모습을 볼수 있다.

지방산업공장들도 사기가 났다.

원료, 자재가 풍부하니 현대화된 식료공장, 종이공장, 가구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들이 만부하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머루, 다래, 찔광이, 산딸기를 비롯한 갖가지 산열매들이 그대로 맛좋은 식료가공품으로 되고 목재림, 종이원료림의 나무들이 밥상과 이불장, 학습장으로 되고있다. 여러가지 약초와 산나물들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보약제, 식료가공품이 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이 모든것이 다 산이 주는 덕이라니 이곳 사람들은 말한다.

돌이켜보면 그 옛날 가난과 설음만을 더해주던 산들이였다.

부대기를 일구며 화전민으로 어렵게 살아야 했던 창성사람들이 홀리는 눈물자욱이 마를새 없던 산, 광주리에 산과일을 담아 이고 타고장을 찾아다니며 생계를 부지해야만 했던 창성사람들이였다.

그러던 산이 오늘은 갖가지 식료품과 생활용품, 약제들을 안겨주고있으니 참으로 창성의 산들이야말로 먹을것도 주고 입고 쓰고 사는것도 다 주는 황금산, 보물산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벽창호의 유래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의 소가 크고 억세여 부리기 만만치 않다는데로부터 《외고집이세거나 완고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을 홀하게 비겨 이르는 말이다.

본래는 벽창우였는데 소리가 와전되여 오늘은 《벽창호》라고 한다.

만부하의 동음울리는 식료공장

창성군 읍에 위치하고있는 창성군식료공장은 각종 산과일들을 가공하여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생산하는 전문산과일가공기지이다.

이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탄산단물들과 단묵, 드롭프스, 과자, 과일술, 된장, 간장들이 생산되여나오고있다. 어느것이나 산이 많은 창성땅의 얼굴이 비낀 제품, 어디에 내놓아도 이곳 산골군을 당당히 상징할수 있는 제품들이다.

지난 시기 이 공장에서는 몇명 안되는 종업원들이 망이며 가마, 독같은것을 차려놓고 겨우 지짐이나 엿과 같은 제품들을 손로동으로 만들었었다.

그러던 공장이 오늘은 현대화된 생산공정을 갖춘 공장으로, 갖가지 식료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척척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변되였다.

생산공정들이 현대화되니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산열매전처리공정, 드롭프스생산공정, 과자생산공정, 음료생산공정, 콤퓨터조종실, 초림계추출공정… 어느것이나 다 그쯘하다.

지난 시기 가을철이면 많은 산열매들을 거두어들이고도 그것을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 애를 먹었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옛말로 되여버렸다.

현대적인 산열매전처리공정이 그쯘하게 갖추어짐으로써 종전에 비해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근 4배에 달하는 산열매들을 신속히 처리하여 생산에 리용하고있다. 과자생산공정에서는 강냉이가 초미분쇄기를 거쳐 독특한 맛을 내는 과자로 변하여 흘러나온다.

머루, 다래, 찔광이와 같은 산열매들을 가공하여 드롭프스와 단묵을 생산하는 공정은 볼만 하였다. 이 공정이 새로 꾸려짐으로써 제품생산에 쓰이던 사탕가루대신 물엿을 50%나 당원료로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병세척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포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선을 갖춘 음료생산현장에서는 각종 탄산단물들이 생산되여나오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가지수도 여러가지이지만 어느것이나 독특한 맛을 가진 천연제품들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하기에 이전에는 돌생일이나 결혼상을 차릴 때면 의례히 중앙공장제품들을 찾군 하던 창성사람들이 지금은 저저마다 이 공장제품들만 요구하고 또 평양에 사는 친척들의 집에도 이 공장제품들을 가지고 가서 자랑하군 한다니 이 얼마나 훌륭한가.

창성사람들이 내놓고 자랑할만 하였다.

이 공장이야말로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자체로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나갈데 대한 국가의 정책적요구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는것이다.

우리 고장의 원료원천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

지금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상표들을 새롭게 일신하고 포장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새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으며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짜고들기 위한 된바람이 일고있다.

만부하의 동음 세차게 울리는 창성군식료공장!

이 공장의 모습에 더욱 더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될 창성땅의 래일이 비껴있었다.

단상 내 고향의 《옥류관》

백로도 지나간 계절이라지만 날씨는 여전히 무덥기만 했다. 여기저기를 분주히 돌아치던 필자가 시원한 국수생각이 간절해진것은 점심시간을 가까이 할 무렵이였다. 이런 생각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려관책임자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리 고향 〈옥류관〉에 가십시오.》

옥류관이라니? 여기서 평양이 어디인데… 나의 이런 의문은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풀리게 되였다.

쌍둥이마냥 조선식기와를 이고 마주서있는 모습은 마치 평양의 유명한 옥류관이 창성땅에 그대로 옮겨온듯싶었다.

내부는 또 얼마나 잘 꾸려놓았는지. 마치 거울을 깔아놓은듯 알른거리는 바닥이며 산뜻하면서도 특색있는 벽장식, 갖가지 모양의 무리등들과 현대미를 살려주는 간접조명… 여기서 봉사하는 갖가지 음식들의 수준 또한 옥류관 못지 않았다.

뜨끈한 불고기를 안주삼아 시원하게 맥주 한조끼를 내고 이어 메밀국수를 척 받아놓으니 국수발이며 육수맛까지 어쩌면 그리도 옥류관국수와 꼭같은지 절로 이런 말이 튀여나왔다.

《이거 한그릇 더 주십시오.》

얼굴에 웃음을 한껏 담은 접대원처녀가 평양에서 온 손님(필자)앞에 쟁반국수 한그릇을 갖다놓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창성사람들은 이 식당을 내 고향의 〈옥류관〉이라고 정답게 부른답니다.》

내 고향의 《옥류관》!

새겨볼수록 깊은 뜻을 담고있는 말이였다.

이 한마디말속에 이 나라 산간벽지에까지 골고루 미치고있는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자기가 사는 이 땅을 기어이 제손으로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가꾸어가려는 불타는 맹세와 의지가 담겨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나의 생각을 확신시켜주기라도 하듯 어디선가 경쾌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

창성각에서

력사유적 천리장성

창성군의 대표적인 력사문화유적으로는 천리장성을 들수 있다.

이 성은 고려시기에 쌓은 성으로서 압록강하구로부터 평안북도의 북쪽과 자강도의 희천지방, 평안남도의 북단을 가로질러 함경남도의 바다가에 이르는 연연 천여리에 달하는 장성이다.

1033년부터 1044년까지 네 단계로 나누어 서쪽으로부터 차례로 쌓았다. 장성은 련이어 늘어선 성벽과 함께 여러개의 독립적인 산성들을 련결하였으며 겹성을 쌓기도 하였다. 성벽의 대부분은 돌로 쌓았고 곳에 따라 흙으로 쌓은데도 있다. 독립적인 산성들과 겹성들은 장성의 방위력을 강화하여 외적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평안북도의 신의주시, 의주군(대산리), 창성군(자작령), 동창군, 운산군, 자강도의 희천시, 동신군, 평안남도의 녕원군, 함경남도의 요덕군, 금야군, 정평군 등에 그 성벽이 잘 남아있다.

이곳 천리장성으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외적의 침입을 막고 나라의 안전을 수호한 선조들의 투쟁과 자랑스러운 민족의 력사를 되새겨보고있다.